

# “전북교육 새 역사 함께 써가자”

### 천 교육감, 취임 후 첫 직원조례서… “쇄빙선 역할로 교육 위기 극복, 도전·변화 이끌 것”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직원조례에서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강조하며 “전북교육의 새 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노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7월 직원조례에서 전 직원과 교육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며 전북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쟁 같은 선거를 끝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아직은 낯선 자리, 낯선 시간이지만 모든 직원의 생각과 뜻 의지를 모은다면 전북교육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교육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우리의 도전 끝에는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빙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준의 불균형 소규모 학교 증가 기초학력 저하 등 전북교육이 직면한 위기는 하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노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7월 직원조례에서 천호성 교육감,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며 이를 단번에 해결할 마법 같은 해법도 없다”며 “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쇄빙선처럼 전북교육의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도전’을 꼽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북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역전하자”며 “따뜻한 생각과 진취적인 마음, 실천하는 도전정신이 있다면 4년 뒤 전북교육은 새로운 역

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직원조례는 천호성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직원 소통 행사로, 전북교육의 비전과 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 군산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 발명·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군산발명교육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와 가족을 대상으로 발명과 메이커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 소속 군산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은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군산용복합미래교육센터에서 ‘2026 여름방학 발명·메이커·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다양한 발명·메이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발명 정규과정과 메이커 특별과정,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세 분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정규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메이커 특별프로그램은 평일 오후에 각각 진행된다.

또한 오는 8월 1일과 8일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글라스 아트와 향수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돼 가족 간 소통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발명 정규프로그램과 메이커 특별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군산용복합미래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8일 개별 문자와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미래교육연구원

### 교원 대상 미래교육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정기)은 6일 전주평화의전당 유향검출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특강 인공지능(AI) 시대 학교 교육의 방향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AI 및 소프트웨어(SW) 기업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모두의연구소 김승일 소장이 맡았다./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교육청, 7월 정기인사 단행… 총 358명

### 신임 행정국장에게 이현규… 현장 수요 반영·조직 안정화 ‘방침’



이현규 신임 행정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 7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57명을 포함한 총 358명 규모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적체적소 인력 배치와 조직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6일 승진 57명(6급 22명·7급 24명·8급 11명), 전보 300명, 파견 1명 등 모두 35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현규 전주학생교



조철호 신임 행정국장

육문화관장이 신임 행정국장에 임명됐으며, 조철호 행정국장은 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기관급 주요 보직에는 김종현 예산과장, 정은이 학교안전과장, 최혜영 행정과장, 홍공속 재무과장, 김중기 노사협력과장, 김영주 시설과장, 최숙미 정책성과담당, 안홍일 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 최선자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최원창 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 장경단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서유경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정주 미래교육연구원 총무

부장 이영주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 노경숙 교직원수련원장, 이상근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이 각각 배치됐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는 교육행정직 전보배치를 적용하고, 고졸 심사 결과와 근무 경력,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순환 전보를 실시했다. 직원들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현장 수요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체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교원 수급 정책, 학생 학습권·공교육 질 좌우하는 핵심’

### 전북교육청, 교원 정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 수급 정책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와 정책 건의문을 6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교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월부터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교직원 3,606명, 학생 522명, 학부모 1,785명, 일반 시민 200명 등 총 6,113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교교협체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

장,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특수·다문화학생 증가,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지역 비율이 높아 소규모학교와 복식학급, 순회 수업 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 제출과 함께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4가지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학급 수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규 채용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상시 협의체 운영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교교협체제 소인수 과목 운영과 공동교육과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원 배치 제도 마련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등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원 수급 정책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느린학습자 학부모 교육·상담 지원

### 전주·정읍·군산시 순회 교육 운영… 1대1 상담까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독과 경계지능 등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전주교육대학교와 함께 느린학습자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지원체제와 교육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일 전주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7일 정읍교육지원청 대회의실, 8일 군산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시청각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실에서 열린 첫 교육은 전문가 특강과 학부모 사례 공유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나경은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이자 한국학중앙대학교장이 할리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교육

지원체제와 교육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최혜경 전주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가 강사로 나서 느린학습자 부모들의 참여와 연대 방안, 자녀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전문가와의 1대1 무료 대면 상담도 제공해 자녀의 특성과 교육 과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AI거점대학 구현 ‘전략적 협력’

### 전북대, SK AX와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위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AI 산업을 선도하는 SK AX(사장 김안중)와 손잡고 AI 거점대학 구현과 실무형 AI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나선다.

전북대는 6일 대학본부에서 SK AX와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AI거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에 맞춰 대학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AI 거점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체계 혁신과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AI 부트캠프와 AI터라시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하고, AI 및 AX(AI Transformation)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채용 연계와 현장실습, 기술 세미나 및 교류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AI 인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반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재양성 정책과 디지털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미래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시대로 평가된다.

전북대는 AI 교육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AI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의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는 AI대학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AI 교육혁신과 피지컬AI 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SK AX의 산업 현장 경험과 연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실천형 AI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AI 경쟁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SK AX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AI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AI 거점대학으로서 교육혁신과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공동 창업관’ 구축 방안 모색

### 전북대-포스코, 간담회 갖고 조성 방향·운영 방안 협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포스코 홀딩스와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창업관 구축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전북대는 6일 대학 본부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간담회를 열고, 산학협력 기반 창업관(가칭) 조성 방향과 지역 혁신창업 거점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오봉 총장과 포스코홀딩스에서는 김기수 부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관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운영 협력 등을 공유했고, 창업 지원 체계 고도화 등도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지역의 청년 창업생태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 지역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상모델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논의된 창업관은 전북대가 보유한 연구·교육 역량과 포스코홀딩스의 산업 전문성, 기술 네트워크, 오픈이노베이션 자원을 연계해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플랫폼으로 구성되고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보육, 투자 연계, 기술사업화,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연구자, 지역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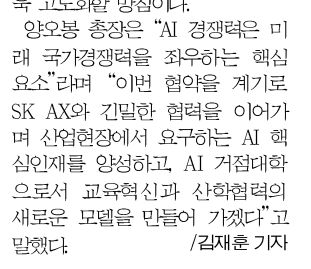
또한 양 기관은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 기반 디태크 스타트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

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포스코형 산학협력 인재·벤처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대는 그동안 창업중심대학 사업, 기술창업 스튜디오,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창업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창업 역량 강화와 기술 창업 활성화에 힘써왔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미래 신사업 발굴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협력 논의가 지역 기반 혁신창업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전북대와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동 창업관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과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국립군산대, KSC·농업법인 N메디컬과 산학협력 계약

### 국립군산대, KSC·농업법인 N메디컬과 산학협력 계약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산학협력단은 6일 (주)KSC, 농업법인 N메디컬(주)과 새만금 대학시립포 현장실증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농생명융합기술을 활용한 교육·연구·산학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립군산대가 한국어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으로부터 임대한 새만금 대학시립포(0.5 ha)를 활용해 학생 교육, 작물 재배 실증, 토양개량 연구, 기업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 대학시립포는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기업과 함께 연구하는 농생명 실증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군산대는 농업법인 N메디컬(주)과 함께 시립포에서 기능성 작물 재배를 실증하고, 향후 식문화와 가공 가능성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KSC와는 간접적 토양개량 기술개발을 통해 적박한 토양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목 관리 기술을 실증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